

'해남의 노래' 뮤직비디오 인기 폭발

대국민 작사 공모 113건 접수
동요·발라드·트로트 노래 탄생
관광지·농수산물도 소개·홍보

해남군이 대국민 공모로 진행한 '해남의 노래'가 뮤직비디오로 제작돼 화제다. 해남군은 해남의 정서를 널리 알리고, 관광활성화 등 역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를 제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열린 작사공모전이 전국에서 113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해남의 매력을 담은 수작의 노랫말들이 다수 선정됐다.

특히 대상을 받은 노래 가사, 동요부문 '꿈마을 꿈마을', 발라드 부문 '땅끝에 가자', 트로트 부문 '해남을 찾아 나를 찾아' 작품은 작곡 과정을 거쳐 노래로 탄생한데 이어 올해는 노래를 부를 가수 선정과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마쳤다.

이번에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노래의 가사, 분위기, 어울리는 내용으로, 해남 지역의 관광지와 농수특산물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했다.

동요부문 '꿈마을 꿈마을'은 해남군 주요 명소에 시작과 끝에 의미를 담은 재미있는 가사가 돋보이며 '땅의 꿈마을, 이땅의 꿈마을/한반도의 처음과 끝 해남'후렴구가 재미있게 덧붙여졌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해남군 관내 북평중, 북평초, 화산초 학생 8명이 참여해 음원을 녹음해



해남 북평중, 북평초, 화산초 학생 8명이 참여해 '해남의 노래' 음원을 녹음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달마산과 우수영 관광지, 공룡박물관 등 해남 관광지를 일러스트 형식으로 표현하고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담아 감동을 더하고 있다.

꿈마을 꿈마을 뮤직비디오에는 300개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구독자들의 반응도 호평 일색이다. 발라드 부문 '땅끝에 가자' 뮤직비디오는 가수 김추리가 노래를 부른다.

해남의 노래 뮤직비디오는 군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트로트 부문 5만 8000회를 비

롯해 조회수도 폭발적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과 문학인들이 엄선해 선정한 노랫말에 유명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인기있는 대중가요 못지 않은 완성도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좋은 노래 한편으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홍보효과 또한 못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해남의 노래가 전 국민이 애창하는 노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도 선보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속도낸다

시의회 사업비 75억원 심의 통과

목포시의회가 한차례 제동을 걸었던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심의·의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목포시의회 제 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예산 75억원이 통과됐다.

목포시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이번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예산은 국·도비 42억 8750만원은 물론 시비 32억원도 포함됐다.

목포시의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며 시의회가 한차례 제동을 걸었던 사업이다.

'목포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대반동 활

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41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38억원 등 총사업비 96억원이 투입된다.

목포대교는 단조로운 야간조명과 완공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시설까지 노후화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부터 14억원에 머물렀던 경관조명 특화사업비를 수년간에 걸친 중앙부처 설득을 통해 확대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용역 등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목포대교 관리 주체인 익산청과 협의를 거쳐 경관조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YOU달콤과 농수산물 구매·홍보 협력

목포 청년상인 모임과 상생 협약

신안군이 우수 농수특산물 구매 및 홍보를 위해 목포시 청년상인 모임인 'YOU달콤'과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체결한 YOU달콤은 2022년 5월에 결성된 목포시의 청년상인 모임이다. 구성인원은 37명으로 식당, 카페, 사진관, 여행사, 펜션,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랑 나눔 및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안군의 농수특산물 구매 협조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우수성 홍보, 신안군 축제 시 YOU달콤 홍보 협조 등 다채로운 판로를 확대해 신안과 목포 두 지역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YOU달콤과 함께 우수 농수특산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신안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되어 군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



비자들이 다시 찾는 신안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 정기회의 개최

영광군이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따라 아동의 권리 실현과 지역사회 내 아동친화 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자리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에는 23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아동참여위원회 등 자문단의 지원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실무추진단 운영계획 및 역할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검토 ▲4개년 추진을 위한 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이 다뤄졌다.

특히 실무추진단은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에서 부서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영광군은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완도군, 한국공공브랜드 종합대상 등 3관왕

해양치유 공익적 가치 인정

완도군이 '제2회 한국 공공 브랜드 시상식'에서 종합대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사진>

완도군에 따르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종합대상 그랑프리와 환경·사회·제도(ESG)-사회적 책임(CSR)-공유 가치(CSV) 부문에서 대상, 디지털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등 3관왕을 수상했다.

완도군은 해양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함으로써 EGS 등이 반영된 공적 경영

활동, 인간과 사회적 치유, 해양·지구의 치유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치유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해양자원·환경 보전 등 사회·환경 부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완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치유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1석4조 이벤트'

12월 한달간 4가지 혜택 제공

영암군이 12월 한달간 '고향사랑기부제 1석4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영암군은 기본 혜택인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은 물론 '답례품 증량', '답례품 추가'를 더해 총 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답례품 증량은 한우·삼·고구마 등 인기 답례품 16개 품목의 양을 늘려준다. 한우는 220g에서 300g으로 증량하고, 추가 국거리용 한우 200g과 한우

사골육수 800mL도 증정한다. 또 영암쌀은 10kg에서 11kg, 고구마는 6kg에서 8kg을 제공한다.

답례품 추가는 이벤트 참여자 중 5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답례품 1종을 추가 증정하는 행사로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통보한다.

이벤트는 고향사랑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답례품 증량의 구체적 내용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는 영암군의 특별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과 풍성한 답례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